

선재동자가 다시 찾아가는 선지식은 엄 부제 마갈제국(마가다 國)의 보리도랑에 있는 안주(安住)라고 하는 지신(地神)이다. 선재동자가 안주신의 처소에 가니, 백만이 나 되는 지신(地神)들과 함께 있던 안주신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잘 왔도다. 동자여, 이곳은 그대가 일찍이 선근을 심었고, 내가 두 눈으로 목격한 곳이다. 그대는 그 과보를 보고 싶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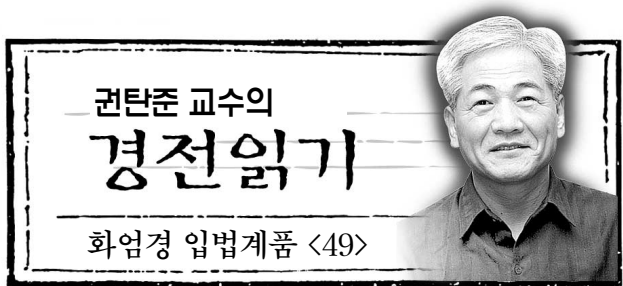
그때 선재동자는 땅 맑은 신의 밭에 접하고 수없이 돌려 합장하고 서서 여쭙고 있다.

“거룩하신 이어, 보고 싶습니다.”

이때 안주신이 밭로 땅을 눌러서 백천의 이승지 보배의 광(寶藏)이 저절로 솟아오르게 하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보배의 광은 그대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옛적에 심은 선근의 과보며, 그대의 복덕으로 유지되는 것이니 그대는 마음대로 사용하라.”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깨뜨릴 수 없는 지혜의 광(不可壞智寶藏)’이다. 항상 이 법으로 중생들을 성취케 한다. 선남자여, 생각해보니 나는 연등 부처님 때로부터 항상 보살을 따라서 공경하고 호위하였으므로, 보살들의 마음, 행, 지혜의 경계, 모든 서원, 정정한 행, 모든 삼매, 광대한 신통, 자유자재한 힘, 깨뜨릴 수 없는 법을 살펴보아 왔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가서 부처님들의 수기를 받았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글리며, 모든 수다라(sūtra) 經의 문을 널리 말하며, 큰 법의 광명으로 널리 비추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켜 왔다. 모든 부처님의 나타내는 신통변화를 내가 모두 받아 지니고 기억하고 있다.



권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49>

안주신의 법문

생사고통 여의는 법문으로 중생양육

자비행 실천하는 곳마다 보리도랑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수미산 티끌 수의 겹을 지나서 장엄업이 있었는데, 세계의 이름은 월당(月幢)이요, 부처님 명호는 묘안(妙眼)이니, 그 부처님께 이 법문을 얻었다. 나는 이 법문에 근본을 두고 들어가 고 나오면서 닦고 익히고 증장케 하였으며, 여러 부처님을 항상 뵈옵고 떠나지 않았다. 이 법문을 처음 얻고부터 현겁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에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 여래, 응공, 정등각을 만나서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공양하였다. 또 저 부처님들이 보리좌에 나아가 큰 신통을 나타내심을 보았으며, 그 부처님들이 가지신 모든 공덕과 선근을 보았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깨뜨릴 수 없는 지혜의 광’ 법문을 알게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능히 지니며, 부처님의

마음을 내며 부처님의 법을 구족하고 부처님의 일을 짓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앞의 대천신(大天神)의 법문이 하늘의 의미와 공덕과 관련된 것이라면, 안주신의 법문은 대지(大地)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의 천신의 법문이 지혜의 원만함에 대한 것이라면, 여기에서의 지신(地神)의 법문은 자비의 원만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땅은 만물을 그 밑에서 지탱하면서 중생을 언제나 양육해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자비로서 모든 것의 아래에 처하면서 여러가지 법문을 설하여 중생을 양육함으로써 모두 생사의 고통을 여의게 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신(地神)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지식을 구하여 계속 남쪽으로 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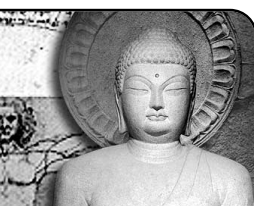
선재동자가 석존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마가다 국의 보리수 아래로 찾아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둠을 버리고 광명으로 나아가는 도(道)가 도달해야 할 곳은 항상 근본정각의 보리도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대지(大地)가 중생들의 일반적인 심지(心地)라고 한다면,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리도랑으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 하는 바는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마음에 번뇌가 정화되어 깨달음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보리도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지신(地神)의 이름이 안주(安住)인 것은 언제나 깨달음의 장소에 안주하여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선근을 보리(깨달음)에로 회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주신의 ‘보살의 깨뜨릴 수 없는 지혜의 광’의 법문의 내용도 결국은 항상 광명을 발하는 근본 장소(本處)로 돌아가 깨달음의 경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보살의 삶에 대해서 설한 것이다. 안주신은 연등불 때부터 항상 보살을 따르면서 공경하고 수호하여 여러 가지 보살의 법을 배워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취시켜 왔다. 안주신은 항상 이 법문에 근본을 두고 끊임없이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부처님을 항상 뵈옵고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법문은 마음의 대지(大地)에 걸고 다 할 수 없는 무량한 지혜를 끊임없이 일으켜 중생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한다면 모든 곳이 보리도랑이요,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 김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5>



평범한 것과 일반적인 것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흠에서 온 음식을 먹고 사는데 간혹 흠 자체를 먹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동물이 흠을 먹는 것은 크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으나 사람의 경우에는 기아 때문에 먹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식증(geophagy)이라 하여 일종의 소화나 정신 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영양류 등의 여러 동물들과 더불어 인간이 의도적으로 흠을 먹는 것은 생각 외로 널리 퍼져있으며, 주위에서도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종종 이런 경향이 관찰된다. 동남아,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음식의 일부나 소화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 남부의 부족 등의 많은 집

들의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기에 이 말은 울고 웃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평소 마음 그대라가 곧 도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일상적인 삶에 만족할 줄 알고(知足)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 있다. 즐겁고 기쁘거나, 울고 웃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은 평범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이식증 외에 요즘 간혹 이야기 되는 동성애를 보자. 살인자는 또 어떠한가? 결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살인,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다. 또 대통령이란 위 치도 비록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집단의 이윤사로서 사회적 동물인 인류 집단이 시작된 이래 계속 있어왔던 자리

“울고 웃는 평범함 속에 도가 있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누는 삶 살아가

단에서 임신부가 직접 흠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 이 때 주로 선호되는 유기물이 많은 고령토 등은 임신 초기에는 칼슘 등의 공급원이 되고, 흠을 먹은 모체 내에 생긴 많은 미생물에 대한 항체는 태반과 초유를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라 여기지만 이러한 종류의 질병은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감염증과는 전혀 다르며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전통적인 음식만 먹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곧 병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종종 듣는 ‘평상심이 곧 도(平常心是道)’라는 말이 생각난다. 간혹 조용하고 안정된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지만, 평상심이란 그야말로 우리

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흠을 먹는 이식증이나 동성애나 살인, 혹은 대통령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평범한 것이요, 더 나아가 죽음이란 것도 지극히 평범한 범사인 것이며, 여기에서 세상의 선악과 시비를 벗어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평등심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고요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좋고 나쁜 일대 대하여 감사하고 지족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삶을 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불제자라면 누구나 가야 할 결코 관념적이 아닌 절절한 체질의 길인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평상심이 곧 도라 하라.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견성하면 부처가 된다(見性成佛)’고 하는, 아니, 더 철저히 말하자면 ‘견성하면 그대로 부처(見性即佛)’라고 하는 선(禪)의 명제는 견성만으로는 아직 부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부인한다. 견성과 성불을 동의어로 쓰지 않는 예가 선종 집안에도 있다. 특히 일본 불교에서 그런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견성을 일변에 받음으로 견소라고 하고 깨달음을 ‘사토리(悟り)’라고 하는데, ‘견소’했다거나 ‘사토리’했다는 말은 해도 차마 그것을 성불이라고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견소를 몇 번인가 거듭하는 이야기, 그 때 어떤 경계를 체험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바로 성불인지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기는 한국 불교에서도 개념 정리가 분명치 않다. 예를 들자면, 흔히 말하는 ‘한 소식’이라는 것은 과연 견성을 가리키는 지, 특히 성불로서의 견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불하는 깨달음까지 아닌 그 어떤 신비체험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또한 고승대덕의 행장에는 대개 언제 어디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오도송(悟道頌)을 읊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견성성불을 가리키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스님이 그 때 부처님 이 되었다는 뜻이냐?’고 감히 묻지를 못하라는 분위기가 있다. 선종에서는 워낙 말 자체



선의 세계 23

견성성불(見性成佛)-10

을 읊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견성성불을 가리키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스님이 그 때 부처님 이 되었다는 뜻이냐?’고 감히 묻지를 못하라는 분위기가 있다. 선종에서는 워낙 말 자체

무기(無記)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틀테면 선종의 무기(無記)라고 할 만하다.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슬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제기될 것이다. ‘한 소식’이라는 것이 ‘견성성불’의 견성이 아니라면

망상이 망상을 낳는다

를 꼬치꼬치 따지는 일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해도, ‘아니다’라고 대답해도 듣는 이들에게 온갖 망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니 그런 질문은 하지도, 대답하지도 않는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석가모니는 외도(外道) 사상이가 제기한 열 네 가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하고 그것을

그건 또 어떤 체험이요 경지라는 말인가? 오도송을 읊게 한 그 체험이 견성이 아니라면 그건 또 어떤 체험인가? 견성은 그 뒤 에 더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것인가? 그런데 왜 견성성(見性頌)이라는 것은 없나? 결국 현생성불(現生成佛)은 석가모니 이외에는 없는 일인가?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너 자신이 깨달아 부처가 되는 일

■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